

차세대 에너지원 '가스 하이드레이트' 동해서 세계 5번째 채취

매장량 6억t 추정...국내 가스 소비량 30년분

우리나라가 대체 에너지원인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통해 심해저에서 채취했다. <관련기사 6면> 산업자원부는 정부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단이 지난 19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물리탐사선 '탐해2호'를 이용해 포항기점 동북방 135km, 울릉도 남방 약 100km 해상에서 자연상태의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실물 채취하는 데 성공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볼타는 열음'으로 불리는 대체 에너지원 가스 하이드레이트. 연합뉴스

일명 '볼타는 열음'으로 불리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천연가스가 영구 동토나 심해저의 저온, 고압 상태에서 물과 결합해 형성된 고체 에너지원으로 외관이 드라이아이스와 비슷하며 불을 붙이면 타는 성질이 있다.

이번에 발견된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수심 2천72m 지점의 해저면 아래 존재하는 것으로, 해저면 7.8m까지 탐사한 지질 시료 가운데 6.5m 지점부터 산발적으로 존재하다 최하부에서 약 2cm 두께로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05년 7월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 지질자원연구원으로 구성된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단을 만들어 동해서 탐사를 추진해왔다. 지금까지 심해저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실물 채취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과 일본 등에 이어 우리나라가 5번째다.

정부는 우선 오는 9월 네덜란드로부터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추선을 용선해 14곳의 시추 후보지 가운데 동해 해상 5곳에서 본격 심해저 시추를 벌일 예정이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세계적으로 10조t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동해지역의 매장량만도 국내 가스 소비량 30년분에 해당하는 약 6억t 선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특1급호텔 건립 차질 없어야

市-사업자 양해각서 등급 조항 불분명

광주시 상무지구에 건립되는 특급호텔은 '특1급' 호텔로 지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시민들은 시장국이 민간사업자로 부터 '특1급 호텔' 건립 허가를 받고 민간사업자는 광주발전을 위한 필수 시설인 특1급호텔을 차질없이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지난해 8월 17일 진흥건설 자회사인 AMJ개발과 체결한 '특급호텔 건립 양해각서'를 통해 이회사가 광주시 서구 지평동에 특급호텔

을 건립하는 대신, 광주시는 진흥건설측에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광주시는 호텔 부지 인근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주는 인센티브를 AMJ개발측에 부여했다.

그러나 최근 AMJ개발이 광주시에 제출한 시설계획서 내용을 보면, 호텔의 등급이 특1급인지 특2급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AMJ개발측은 "특1급 호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호텔 등급 판정이

중공 후 이뤄지기 때문에 대외적인 약속을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설계획서로 볼 때 특2급 호텔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더구나 AMJ개발은 지난해 건립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애초 자신들이 구상한 호텔 규모(120실)를 시의 요구에 따라 200실로 상향 조정했고, 특1급 건립시 특2급보다 건축비가 최소 50억~100억원 이상이 더 든다며 특

급 건립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립양해각서로만 보면 호텔 수준은 전적으로 사업자의 의지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광주시는 AMJ개발에게 특1급을 강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특2급을 짓더라도 아무런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특급호텔과 아파트 사업승인 과정에서 반드시 특1급호텔을 짓도록 각종 제한과 행정적 조치를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社告

제17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29일 오후 2시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정신교수 '최첨단 감마나이프 뇌종양 치료'

광주일보사와 전남대병원원은 오는 29일(금) '제17회 테마가 있는 시민건강강좌'를 개최합니다. 시민강좌는 전남대병원 전문 의료진이 직접 나서 강연하고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강좌는 최첨단 뇌종양 치료법인 '최첨단 자동로봇 감마나이프'의 안전한 뇌종양 치료를 주제로 열립니다. 강사는 전남대병원 신경외과 정신교수로, 자동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감마나이프 소개를 비롯한 감마나이프 시술 적응이 되는 기타 뇌질환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강좌내용은 다음달 3일(화) 광주일보에 게재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 제 : 최첨단 자동로봇 감마나이프 뇌종양 치료
- 강 사 : 정신 전남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전남대학교 의학박사
-최신 전남대병원 신경외과과장
-전남대병원 임상연구실실장
-스웨덴 카롤린스카대 감마나이프 연수
-대한 뇌종양학회 두개저학회 상임이사
-광주일보 베스트닥터(뇌종양) 선정

- 일 시 : 6월29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 문 의 : 전남대병원 홍보실(062)222-5092
교육연구실(062)220-6082

光州日報社·전남대병원



나라사랑 백일장

광주지방보훈청이 주최하고 광주일보사가 후원한 '나라사랑 청소년 백일장'에 참가한 광주·전남지역 초·중·고교생들이 24일 광주공원 현충탑 앞에서 우산을 쓴 채 글짓기에 여념이 없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區경계 조정 필요” 93%

광주일보 인터넷패널 여론조사

“인구·면적·재정 불균형 해소해야”

날로 격차가 심해지는 광주시내 자치구간 재정·인구·면적 편차를 시정하기 위한 구간 경계조정에 대해 광주·전남 여론주도층 10명 중 9명이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광주일보가 광주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해 지난 21일~23일 본보 인터넷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e-메일 설문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에는 271명의 패널이 응답했다.

패널들은 '광주시내 자치구간 경계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93%로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7%에 불과했다. 경계 조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간 경계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정치인들의 반대'라는 응답이 43%, '해당 자치단체의 노력 부족' 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공감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57%가 '구간 인구, 면적 불균형'을 꼽았으며, 22%는 구간 재정의 불균형, 21%는 주민 복지서비스 불균형으로 답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인터넷 패널 = 광주일보사가 독자와 함께 하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한국 신문 사상 최초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 광주·전남 학계, 법조, 정치, 경제, 여성, 문화예술, 시민단체 등 각계 오피니언 리더 497명이 참여하고 있다.

유망학원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담전화 062-970-0114 ▶ T.062-970-0001~9

세계로 앞서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 상담전화 1588-5051 ▶ T.061-360-5000

매일, 속눈썹 퍼머한 듯

라네즈 하이뎀 컬링 마스크라
Curling for Asian Eyelashes.
혁신적인 디스크형 리버브러시가 놀라운 밀착력으로 컬링한 후, 파스텔리마가 속눈썹 퍼머한 듯 파워 세팅, 물레시로 연출해주는 마스크라. 아시아 여자들의 팔고 쉽게 취하는 속눈썹 고민으로부터 탄생.

make up stand

LANEIGE

고객상담실 080-023-5454(수신료 무료) www.laneige.co.kr